

오전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갈 이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	10장(전능왕 오셔서)..... 다 갈 이
※ 교 독 문	36(시편90편)..... 다 갈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276장(아버지여 이 죄인을)..... 다 갈 이
예배기도	1부 노재의집사 2부 박홍만장로
응답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 갈 이
협력의찬양 / 한마음기도 / 중보의기도 다 갈 이
*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이사야 38:1-7 김기희권사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 > 최세열목사
기 도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435장(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갈 이
봉 헌	(9 구역)..... 다 갈 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성 찬 식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갈 이
※ 축 도 최세열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금)
전교인전도대회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계 기 도 / 한마음기도 본 문 / 뱀전 2:11-17 말 씬 / 최세열목사 “그리스도인의 의무1” 주기도문 / 다같이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마가복음강해)
오후2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기도후 전도대회를 갖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시 개인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다 음 주 기 도 1부 김선주집사 2부 강항구장로
	헌금위원	9월 공영순 신혜영 김근중 이중열 10월 김애자 박상귀 이완수 김장숙	다 음 주 성경봉독 1부 인 도 자 2부 함경숙권사
	식당봉사	금주 에스더B 다음주 루디아A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박상귀권사
	헌신찬양	금주 9 구역	다음주 10 구역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 / 이사야 38:1-7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때로 유비무환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도 평화롭고 잔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님은 이들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공적을 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1.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왔음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왕하18:2-7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왕하18:7).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선고받는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진실함으로 믿음을 지켜왔음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함을 기억하시고 환난의 날에 도와주십니다.

2.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그 무엇보다도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위기가 다가오자 그는 곧 벽을 향하여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고넬료는 성령충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도는 평소에 드려져야 합니다. 위급할 때만 하는 기도는 그 진실성도, 하나님의 능력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눅22:46)고 당부하셨습니다.

3. 구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평소 구제함으로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시편37:26절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했고, 잠언19:17절은 “가난한 자를 붙잡지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잠19:17)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마10:42)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눅6:38)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삶, 기도함, 구제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환난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절 다섯째 주(2014.10.3)

제40과 우리의 곤경과 하나님의 은총(욥기 37장 14-24절)

(함께 읽을 말씀 : 로마서 9장 14-26절, 마태복음 14장 22-33절)

말씀묵상

1. 욥기에서 엘리후(하나님을 대변하는 젊은 지혜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능력의 영광을 욥과 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맞서는 욥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은 사람이 이해하거나 거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욥에게 좁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라고 충고합니다.

욥의 모습이 로마서에서는 유대인을 통해 재연됩니다. 선민사상은 유대인들이 독선에 빠지는 울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이 에서는 내치고 둘째인 야곱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유 선택은 하나님의 불공평이나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총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작으므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으니 절로 구원받고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내치고 대신, 이방인을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욥도 이스라엘도 다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깨닫고, 회개해서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2.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마태공동체가 풍랑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순항이 멈추었습니다. 그 까닭은 외부적 요소인 유대교의 박해와 내부적 요소 때문입니다. 곧 마태 공동체 자체가 여러 세속적인 욕망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높낮이 다툼으로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풍랑 이는 바다와도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풍랑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던 것처럼 마태공동체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배는 다시 순항합니다. 풍랑에 빠졌던 마태공동체도 다시 힘차게 항해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처럼 한 개인도 언제든 풍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야기에는 훌륭한 믿음과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도 언제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물 위를 걷다가, 다가오는 폭풍을 보고는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왜 물에 빠졌을까요? 수제자라는 오만이나 자기 믿음에 대한 자만 때문에 시험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3. 언제든 한 개인(욥)도, 백성(이스라엘)도,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혼돈의 물에 빠져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어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자기 의를 내세울 때, 또는 세속의 것에 넘어질 때, 우리는 혼돈의 바다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주님, 살려 주세요’ 소리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믿음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을 향해 도움을 손을 내미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어느 틈에 오셔서 우리를 잡아 주십니다. 아멘.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2. 예배 후 구역장 인도자 모임이 전도실에서 있습니다.
3. 오늘 찬양예배는 전교인 전도대회로 모입니다. 전교우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4. 동수원시찰교역자회가 9월30일(화)에 하늘못 교회에서 모입니다.

(설교 중 예화)

진실한 삶과 용서

남아프리카 미개 부족 중에 바베포족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광장 한 복판에 데려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죄인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 섭니다. 그리고 한 마디씩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모두가 듣게 말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죄인이 과거에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말해야 합니다. 좋은 점만 말해야 합니다. 장점, 선행 그리고 좋은 점을 말합니다. 비난, 욕, 책망하는 말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마디씩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간 것이 많으면 모두가 용서하여 주는 것입니다.

주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 미국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세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알로피셔라는 탈모증을 동반한 병이 생겼습니다. 머리칼이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썹도 빠져나갔습니다. 몸이 말라 갔습니다. 의사는 불치병이라 1년을 못 살 것 같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사명 통보를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 데 벽에 족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행 20:35)

록펠러는 이 글을 읽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때 병원 로비 한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딸을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입원비를 내지 못 하여 병원 직원과 어머니가 실랑이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여 주었습니다. 얼마나 불치병 환자였던 그 딸이 완치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때 록펠러는 자기 병도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는 확신이 불처럼 임하였습니다.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내 재산은 인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후 그는 위대한 사업가로 변신하였습니다. 록펠러는 제일 먼저 뉴욕에 리버사이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후 4,928 교회를 혼자 지었습니다. 대학을 24개 지었습니다. 55세를 넘기지 못 하리라던 그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안복선 김해경 김선주 원혜경 김민순 김홍영 강국환 김용선 김선영 박희순 박경자 박치국 이영란 우기남 안해숙 윤종원 윤승호 최경선 선우명환 장영분
- 감사헌금 : 이종춘 심문자 황은상 김옥길 여순애 김정수 김정안 양희임 양석임 김순님 김선주 원혜경 강국환 김용선 김지환가정 김동현가정 (일천번제)김동현 (심방)신공님
- 건축헌금 : 박치국 이영란 김옥길 여순애 박희순 신공님 이성래 이영란 이정아 이 현 이철희 윤종원 안해숙 김선자 노순영 안해숙 김선주 원혜경 선우명환 장영분 마르다회
- 비전씨앗 : 황은상 김예진 김승호 배영인 안채빈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이현옥	3	10,000	10	김귀례	7	강은순	이영선			11,000	90	한국회
2	정정희	김한순	김영숙	4	17,000			8	김순님	오복실	정숙자	5	25,000	80	오복실
3	이춘호	항경숙	강국환	14	18,000	200	이종봉	9	김민순	이영란	박치국	3	15,000	200	김선자
4	김기희	최경선	주중임	5	15,000		최경선	10	장영분	노순영	노순영	5	25,000	70	김해경
5	이문순	원혜경						계				46	167,000	720	
6	류종란	김애자	정재영	7	31,000	70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39

2014.9.28.

9월의 기도 - 창조절 넷째주일

어제와 오늘, 영원 속에 역사 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죄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을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참 생명을 주셨으니 찬양을 드리나이다.

주님께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사랑하시어 1,600 교회 30만 성도를 이 땅에 두시어 그리스도의 제자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게 하셨나이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제99회 총회를 주님의 섭리 안에 개최했나이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회하는 교회”로써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며 한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였으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어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사신 온 세상을 돌보게 하소서.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환영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게 된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황광선 - 영통구 매여울로 10번길 3 세일빌라 A동 202호

담당목사 : 최세일(jmcsr@hanmail.net)

사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 김영란 반주: 안진영